"버섯 재배에 기상정보 활용"

- 2007년 제2회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

표고버섯 생산에 대해 기상정보의 활용이 2005년에 비해 2006년에는 11억6천5백만원에 상당한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장흥 농협** http://www.xn--980bz23brgk2ib.com 장흥농협 www.장흥농협.com

세계화속에서 농업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맞춰 우리농업도 변화해야한다. 특히 장흥지역은 임야가 68%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참나무이다. 이러한 환경은 표고버섯을 재배하기에 좋은 환경임에 틀림없지만, 기상 상태에 따라 생산량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

2006년 광주지방기상청과 연계하여 기상사업자를 통해 장흥지역의 표고버섯에 관한 특화된 기상정보를 SMS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상정보의 올바른 활용으로 표고버섯 재배관련 뿐만 아니라 기타 수도작 영농 및 축산분야 등 농업전반에서 미리미리 대비하여 계획영농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높이고 적기 수확에 따른 적기 판매와 비오기전 수확으로 우수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6년도에는 건표고 305톤을 산지 판매하여 43억9천4백만원으로 2005년도 32억2천9백만원에 비하여 11억6천5백만원에 상당한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7 농업 기상정보의 활용 〔 장흥 농협 글쓴이 : 김용경 유치지점장 〕

〔제2회 대한민국 기상정보 대상 특별상〕

□ 기상정보의 배경 및 필요성

○ 전남 장흥지역은 표고버섯의 주산단지로 임야의 68%가 참나무로 되어 있어 노지표고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어 전국 건표고버섯 시장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무리 버섯재배에 좋은 환경이라도 기후나 강수량이 맞지 않을 경우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상조건에 따라 표고버섯의 등급이 달라지므로 가격차이가 심하게 된다.

○ 장흥표고버섯은 노지재배로 향과 맛이 독특하여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하여 특산품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노지재배의 특성상 습도와 강수유무에 따라 버섯의 등급이 달라져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적기적시에 기상정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특화산업기상정보 서비스 도입

○ 기상청과의 협약으로 광주지방기상청을 통하여 “표고버섯 생산에 대한 기상특화정보”를 제공 받기 시작하였다.

○ 표고버섯 생산 및 수확에 맞는 특화된 기상정보를 표고버섯 작목회원에게 실시간으로 팩스 및 유선으로 제공한 결과, 표고버섯 적기수확으로 노지재배 한계를 극복하여 적기수확으로 연간 9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소득이 향상 되었다.

○ 그 후, 기상정보의 중요성을 실감한 회원들이 기존의 특화산업기상정보가 유선을 통해 각 작목반장에게 제공 된 후 다시 작목회원들께 제공되는 2단계 전달 방식보다 각 표고버섯작목회원들이 직접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휴대폰 SMS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기 시작하였다.

○ 2006년 10월 광주지방기상청과 연계하여 기상사업자가 장흥지역 표고버섯관련 날씨 정보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장흥지역 포고버섯 작목회원 모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림14. 장흥 표고버섯>

□ 특화된 기상정보활용의 경제적 효과

○ 표고버섯 재배관련 뿐만 아니라 기타 수도작 영농 및 축산분야 등 농업전반에 대하여 미리미리 대비하여 계획영농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높이고 적기 수확에 따른 적기 판매와 비오기 전 수확으로 우수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하여 2006년도에는 건표고 305톤을 산지 판매하여 43억9천4백만원으로 2005년도 32억2천9백만원에 비하여 11억6천5백만원에 상당한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 또한 장흥 표고버섯이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노지재배에 따른 핸디캡을 기상정보 적극 활용 등으로 선진·과학 영농으로 극복하여 「SBS 뉴스와 생활경제」에서 소개되고 타지역 및 농협에서 벤치마킹 의뢰와 선진지 견학 등이 이어지고 있다.

○ 특화산업기상정보에 힘입어 명품 표고버섯으로 인정받아 소득이 불규칙함에도 노지재배를 고집하는 것은 장흥만이 생산할 수 있는 품질 좋은 버섯을 생산하기 위해서이고 기상청으로부터 기상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날씨에 의한 품질 저하를 최소화(표고버섯은 품위별로 1등급에서 72등급으로 구별됨) 하고 있다.

○ 이런 철저한 품질관리로 정부가 인증하는 「지리적 표시등록」을 마쳐 장흥표고버섯은 장흥의 바람과 토양 등이 키워낸 자연산 명품표고버섯임을 인정받아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